歲寒圖를 통해 본 공간의 문화 연구

'Cultural study' of the Space in "SE HAN DO"

고 인 룡* , 동 재 욱**
Koh, In-Lyong Dong, Jae-Uk

Abstract

In this paper, I tried to apply the viewpoint and the method of "Cultural Study" to the analysis of a Architecture. "SE HAN DO(歲寒圖/ Jeonghee Kim 金正喜/ 1844)",the masterpiece of the "literary artist's paintings"(文人畵) is used as a 'TEXT'(: parole) and analysed to show how artist's value and social-cultural ideology (as a 'CONTEXT':langue) are projected to the space and architectural vocabulary.

키워드 : 심상, 세한도 , 김정희 , 문화연구 , 의미 , 투사 , 문화적 층위
keywords : menatal image, SE HAN DO , JEONG HEE KIM, Cultural study, meanning, projection, Cultural Layer

I. 서 론

건축은 공간을 다루는 예술이다. 그러나 공간은 단지 "비어" 있거나 어떤 것 "사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축공간은 건축물의 고유한 기능을 담아내는 조건이며 동시에 건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부여되는 가치와 정신을 투영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또 많은 시대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건축물을 갖고 싶어 했으며 이를 꿈꾸어 왔다. 본 연구는 건축을 문화적 산물이라는 전재 아래 건축 통해 반영되는 시대의 가치와 삶의 태도를 "문화연구"적 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화연구는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의 산물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구축하는 내적인 심층구조를 밝히려"[1]고 노력하는 일련의 연구태도를 지칭한다.[2] 건축역시 하나의 텍스트로 읽힌다면 언어와 기호와 같이 특정 문화권을 지배하는 도덕, 윤리, 관습 또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문화적 시스템(langue; 랑그)안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문화현상(parole; 파롤)들 중 하나이다.[3] 따라서 건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되는 의미와 가치들은 세상에 드러나며 건축을 사용하거나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은 의미의 전달일 기호나 언어로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건축물이 깆는 고유의 기능(건축물의 목적 즉 "주택""학교"와 같은)이 우선된다. 문화연구적 인 측면에서 "공간은 텍스트인 동시에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컨텍스트이다"[4]라고 지적되는 다중성을 지니기도 한다. 본 연구는 '문화연구'의 시각과 방법을 건축물의 분석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 이다. 이를 위해 '문인화(文人畵)'의 대표작인 "세한도(歲寒圖,金正喜,1844년작)"를 '텍스트(TEXT)'로 작가의 가치와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Context)가 공간과 건축적 어휘들에 '투영'(projection)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한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건축물의 경우 작가의 의도를 발견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세한도는 건축물을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메타언어"이며 이를 통해 본 격적인 건축물 분석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실험실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정회원, 천안공업대학 건축과 부교수
** 정회원, 천안공업대학 건축과 부교수

1) 황인성, "구조주의와 기호학 그리고 문화연구", 「문화연구이론」, 한나래 언론 문화총서25, 한나래,1998. p29

2) "연구태도"라고 한 이유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가 하나의 학파로 묶기에는 그 대상과 방법등이 광범위하여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연구는 과거의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관점"에서 모든 문화적 행위가 항상'사회'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연구의 두가지 학문적 기반은 "기호학(Semiotics)"과 "구조주의"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에서는 생략 한다.

3) 이것은 F.d.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의 틀을 적용한 것이다.

4) 전규찬 "*문화정치*", 『문화연구이론』 한나래 언론 문화총서25, 한나래,1998. p171

그림 1 세한도

1.1 건축연구와 문화연구

언어학적 방법으로 시작된 "기호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복합적인 형태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가 나타나는 범위에서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의 태도나 r결과를 '문화연구'라 할 수 있다. 건축의 특성 상 이러한 문화적 결과로 이해 되어 왔고 따라서 건축 또한 문화적 산물이며 동시에 문화적 의미를 담는 여러 가지 요인 (공간, 형태, 상징, 구조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연구의 대상이 된다.

1.2 연구의 방법과 대상

세한도는 "실경산수"가 아니다. 다시 말해 실재 있는 대상을 옮겨 그린 것이 아니라 김정희의 "심상(心像)"을 나타낸 것으로 마음을 글과 더불어 이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빗대어 나타내는 것이 문인화이다.[5] 그러므로 단지 그림의 구도를 바탕으로 세한도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은 바로 이러한 문인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작가의 정신적이며 내면적인 의도의 표현과정을 중시하고 가시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결과를 분해하여 해독(decode)함으로써 이미지 속에 삽입된 사회 문화적 구조를 살펴 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건축적 공간으로 입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건축의 공간 구성 방법에서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알아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희가 처한 상황과 내적인 의도 및 가치관, 그리고 이것이 당시 사회의 규범 속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 가를 살펴 보기위해 1차적으로 그림의 요소들를 건축적 어휘로 번역하고, 그림 속에 담고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건축적어휘(요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5) 유홍준은 "세한도는 완당의 마음속의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그림에 서려 있는 격조와 문기(文氣)가 생명이다. 완당은 여기서 갈필(渴筆)과 건묵(乾墨)의 능숙한 구사로 문인화의 최고봉을 보여 주었던 원나라 황공망이나 예찬류의 문인화를 따르고 있다"고 하고 또 "세한도는 구조와 묘사력 따위를 따지는 화법만이 아니라 필법과 묵법의 서법까지 보아야 제 맛과 제 멋과 제 가치를 맛볼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유홍준 앞의 책, p398)그러나 본 연구는 그림에 나타난 김정희의 생각과 공간의 구성을 살펴 그 의미를 건축적 시각으로 해석 해 보려고 하는 것이므로 관상의 정도를 벗어나 그림의 구도만을 바탕으로 공간을 파악하고 그 구성요소의 나타내는 바를 알아보려고 한다.

2. 문화연구를 위한 세한도분석

2.1 세한도의 배경과 의미분석

1) '세한도'의 개요

본 연구에서 건축적 공간의 "메타매체"로 분석하는 "세한도"(歲寒圖)[6]는 김정희의 제주도유배(1840-1848)생활 중 그의 나이 59세때 (헌종10년,) 제자인 이상적에게 그려 준 그림이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로 인정 받고 있으며 당시 김정희의 처지와 제자 이상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단순하고 소박한 필치로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동시에 건축적인 눈으로 보면 이 그림은 건축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공간을 구성하는 2가지 방법인 용기(用器)로서의 공간"과 "장(場)으로서의 공간"[7]이라는 두가지 공간의 모습이 다 표현되어 있다. 극도로 장식이 배제되어 있는 이러한 그림의 요소들은 건축과 관련된 기본적 요소와 그 순수성을 강조하는 '미니멀리즘'적 태도와 유사하게 느껴진다. 그림을 그린 목적이 분명하며 동시에

그림 2 로지에의 건축의 원형

6) 본 연구에서 "세한도"와 "김정희"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의 자료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유홍준, "완당평전 1,2,3", 학고재, 2002.
오주석,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1" , 솔 , 1999.
강명관,"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푸른역사, 2001.

7) 유루겐 요디케 저, 윤재희 외 역, 건축 공간과 형태 , 세진사,1995. pp1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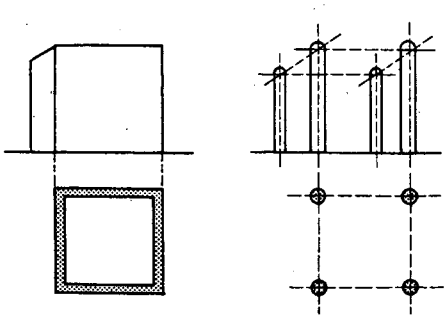

그림 3 공간의 종류

그림에 나타난 요소가 각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요소가 건축 공간의 구성원리로 전환되는 원형을 지니고 있어 그림의 의미와 건축의 일반적 의미를 비교하기에 적당한 대상이다.

2)발문을 바탕으로한 1차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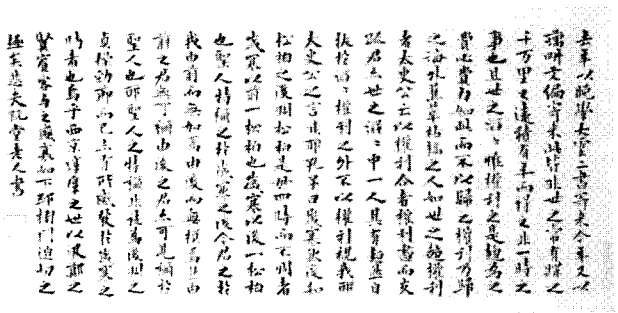

그림 4 세한도의 '발문' 부분

세한도에는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를 밝히는 화제(畵題)[8]과 발문(跋文)[9]이 있다. 특히 발문에는 이 그림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글이 실려 있다.

"孔子曰 歲寒然後 知松栢之後凋"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날이 차가워진 후에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안다"

이 부분에 이 그림의 제목인 "세한(歲寒)"과 그림의 중요한 소재인 소나무, 잣나무(松柏)가 등장하고 있다. 결국 외롭고 어려운 자신의 유배생활을 세한(歲寒)에 비유하고, 제자인 이상적의 인간됨을 이 세류에 휩쓸리지 않는 송백(松柏)으로 비유하며 동시에 선비로서의 기상을 잃지 않으려는 자신의 굳센 의지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 "세한도"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 매우 단순하고 여백을 많이 사용하며 물기가 없는 마른 필치로 더욱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이루는 요소는 초가, 소나무(노송, 곧은 소나무), 그리고 초가 뒤에 곧은 잣나무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 역시 특정한 대상을 투사(projection)하고 있다.[10] 이를 바탕으로 그림에 표현된 요소들 별로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세한도의 요소별 투사 대상과 상징내용

<table>
<tr><th>그림의 요소</th><th>초가</th><th colspan="3">주변의 소나무</th></tr>
<tr><td>투사 대상</td><td>김정희 자신</td><td>김정희자신</td><td>이상적</td><td>-</td></tr>
<tr><td rowspan="2">상징 내용</td><td rowspan="2">-유배되어있는 자신의 처지
-초취하고 초라한 모습
-자신을 지키는 자신만의 공간(정갈한 선과 형태)</td><td rowspan="2">오랜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경륜</td><td rowspan="2">변치 않는 사제의 도
제자의 곧은 인품</td><td rowspan="2">유교적 가치 희망</td></tr>
<tr><td colspan="2">변치 않는 선비의 도리</td></tr>
</table>

2-2 김정희의 공간 읽기 - 유배지에서의 현실공간관계를 통한 2차적 층위읽기

다음으로 세한도를 그릴 당시의 김정희의 현실적 공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적 공간이 그림으로 형상화 될 때 반영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추운날의 그림이란 결국 김정희가 처해 있는 유배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희는 전술 한 바와 같이 1840년(헌종 6년) 형벌을 받아 육지에서 떨어진 제주도의 서남쪽에 있는 대정현으로 유배를 간 것인데 정확히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은 "대정현에 위리안치"하라는 것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란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죄인의 거처에 가시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가두는 유배형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이다.[11] 따라서 그의 고립 및 단절감은 매우 심했을 것이다. 가시 울타리에 관해 그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 가시울타리를 둘러 치는 일은 이 가옥 터의 모양에 따라 하였다네. 마당과 뜨락 사이에서 또한 걸어다니고 밥

8) 화제는 "歲寒圖 藕船是賞 阮堂"라고 적었고, 이를 풀면 "추운 때의 그림 우선(제자 이상적의 호)이 볼 것. 완당 (김정호의 호)" 라고 하여 제목과 이상적에게 보내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9) 발문에는 이상적이 구하기 힘든 책들을 보내줌을 감사하고 이를 기리는 내용으로 본 고에서는 전문의 게제와 내용풀이을 생략한다.

10) 오주석의 앞의 책, pp136-139 내용 참조

11) 유홍준, 앞의 책 p332를 보면 " "위리안치는 보통 탱자나무 울타리로 사면을 둘러 보수주인(감호하는 주인)만 출입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탱자나무 울타리는 전라도와 제주도에 많았기 때문에 위리안치를 받으면 이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완당은 그 많은 유배중에서 절도(絶島), 그중에서도 가장 멀고 흉악한, 이른바 원악지(遠惡地)인 제주도, 그중에서도 서남쪽으로 80리 더 내려가야 하는 대전현에 위리안치되었으미 그 가혹함은 곱징역인 셈이다"라고 그의 처지를 밝히고 있다.

먹고 할 수 있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가 머물던 집에 관해

"*집은 넉넉히 용신(容身)할 만한 데를 얻어 한칸방에 마루가 있고...*"[12]

그림5 대정 추사 적거지 복원모습
(유홍준,앞의 책 p347에서 전재)

라는 글에서 당시의 형편과 공간을 짐작 할 수 있다.

유배지에서의 김정희는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일정한 영역안에서 격리 고립되어있었고, 편지와 지인들의 방문등이 이러한 폐쇄적 상태를 이겨내는 '문' 내지는 '통로'였다. 세한도의 중심에 있는 집을 김정희 자신을 투사한 것이라면 사방이 막혀 있는 집에 유일하게 '월창(月窓)이 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3]

김정희는 당시 사회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유배되어 있고 동시에 유배지인 섬(제주도)의 상황이 사방이 바다로 격리된 장소 이며 그 중에서도 가시 울타리가 처진 곳에서 생활하는 처지이다. 이는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중 삼중의 격리상태 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김정희의 위치를 도형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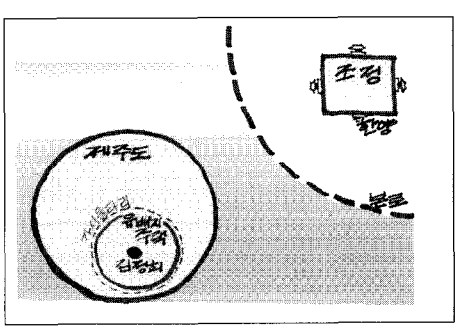

그림 6 김정희 유배 공간개념도

12) 유홍준, 앞의 책 , p346-347에서 재인용

13) 유홍준의 앞의책에 의하면 김정희는 유배 중에도 끝없는 독서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이러한 상태를 오주석은 그의 책(p137)에서 세한도에 그려진 집을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집주인 완당 김정희, 그 사람을 상징하는 허름한 집은 외양은 조촐할지언정 속내는 이처럼 도도하다. 남들이 보건 안보건, 미워하건 배척하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이집에서 스스로가 지켜나아갈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유배생활을 하는 김정희의 위치는 "중앙, 중심, 조정, 본토"로부터 떨어져 나와 "변방, 주변, 지방, 섬"으로 격리된 위치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 이중, 삼중의 공간적 고립의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희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생각은 그의 작품속의 공간구성(구조)에 반영될 수 있다.

2-3. 세한도의 공간관계 -2차원 심상에서 3차원관계도로

세한도는 이미지 그것도 마음의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공간적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무리하게 현실 공간으로 전환하여 해석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건축적 공간에 반영되어있는 문화적 요인을 파악하고 드러냄으로써 건축물이 지니는 1차적 기능과 함께 그 속에 의미지워진[14] 다양한 사회적 구조적 힘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건축공간의 구성을 살피는 중간대상(메타언어)으로 삼은 세한도의 공간을 3차원 공간적 변이를 시도 한다. 세한도에 나타난 공간의 위치 및 공간 구성요소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1) 세한도 공간의 표현방법

김정희가 세한도에서 사용한 3차원공간의 표현 방법은 '평행투상도(paraline views)'중 '사투영법(oblique)'을 사용하고 있다. 사투영도는 전통적인 동양화의 표현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특히 '입면오블리끄(elevation oblique)는 매우 일반적인 표현방법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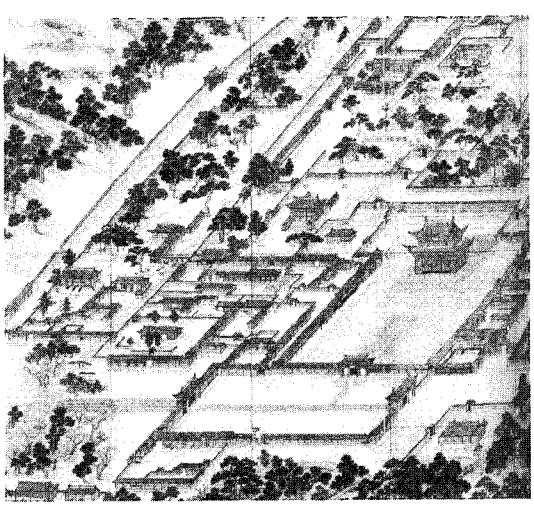

그림 8 東闕圖중 창덕궁부근

14) 문화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Stuart .Hall은 "담론을 통해 무었을 안다는 것은 언어를 통한 현실의 투명한 재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상황들에 대한 언어적 조작의 산물이다"라고하면서 "의미의 사회적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박동숙 "*대중문화의 수용자*",「문화연구이론」, 한나래 언론 문화총서25, 한나래,1998. p119에서 재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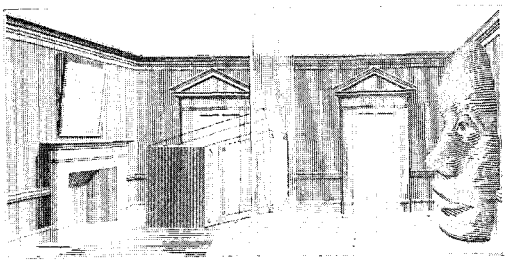

그림 7 사투영도의 작도 원리
(더글라스 쿠퍼 저, 최길렬 역, "드로잉과시지각",국제,1994.,p141 에서 전재)

입면 오블리끄는 관찰자가 보는 정면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동시에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록도나 화성의궤 같은 정확한 도면으로도 자주 이용되었으며 조선시대의 많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방식이다. 입면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사투영도(입면 오블리끄)는 입면이 위치한 화면선(Picture Plan:PP)을 기준으로 측면과 지붕면이 같이 표현되는 방식으로 이때 측면은 화면선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단축하여 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옛 그림들에는 이러한 단축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측면의 길이 그대로 그려져 오히려 길어 보인다.

세한도 역시 이러한 사투영도를 바탕으로 묘사되어 있다.

2치원그림을 사투영법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준이 되는 집을 바탕으로 그림의 각 구성요소의 위치관계를 살펴 , 3차원공간의 관계를 짐작 할 수 있다.

2)세한도의 3차원공간구조

그림 속의 건물에서 입면을 기준으로 각 요소의 거리와위치관계를 보기 위해 그림위에 보조선을 얹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되는데 건물을 기준으로 볼 때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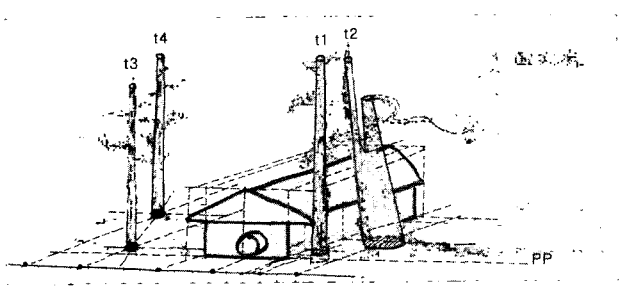

그림 9 세한도의 사투영분석

은 네그루의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 개의 기둥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영역의 공간이 구성되어 '공간안의 공간'(space in space)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주거는 덩그라니 추운벌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또 다른 공간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의 요소들을 평면 좌표로 바꾸어 평면배치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아 나타낼 수 있다.[15] 이 그림에서 보듯 집을 둘러 싸고 있는 소나무 들은 주거를 불완전하게 에워싸고 있다. 이중 오른쪽의 늙은 소나무(t2)는 그림에서는 집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지만 3차원의 위치에서는 주거를 에워싸는 또다른 겹으로써의 위치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나 4개의 기둥으로 정의 되는 공간의 흔적을 분명히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한도의 공간 개념은 앞서 살펴 본 김정희의 유배지 공간 개념에서 '위리안치'된 김정희의 위치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른데 김정희의 집을 둘러싼 가시덤불과 세한도의 집을 에워싼 나무들의 의미를 통해 김정희라는 인물의 지니는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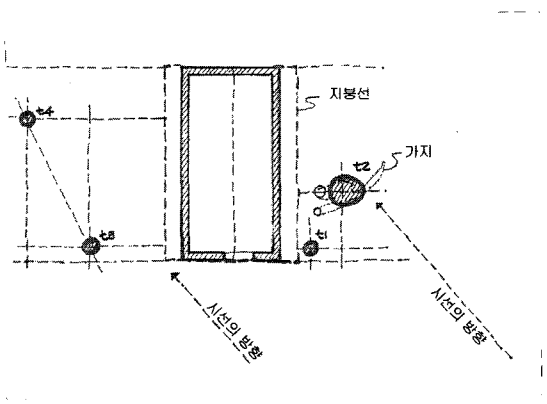

그림 10 세한도의 평면배치

3. 문화연구적 방법을 통한 공간의미 읽기

3-1. 허위의식[16]으로서의 심상적 공간구조 읽기

세한도와 김정희의 현실적 상황을 비교 해 보면 공간적 구조가 유사함[17]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가, 현실적 공간요소들이 그림에서 변형, 대치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즉, 그림 속에 나타나있는 구성요소들은 현실공간의 요소를 변형시키는 '허위의식'의 기재로 삼고 있다. 이 둘 사이의 의미와 표현이 가지는 간격비교를 통해 문화적 반영으로 나타나는 건축적 요소 해석의 한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 현실공간과 세한도에서의 공간에서 각 요소들의 대치와 의미의 변화 및 적용된 건축적 어휘들을 비

15) 이 그림에서 보듯 시선의 방향은 사투영도의 특성상, (소점투시도의 경우처럼 시점이 한점에서 고정되지 않고) 대상과 일정한 각을 갖고 평행하게(태양광처럼) 바라보는 것이 된다.

16) '허위의식'이란 문화의 충돌과정에서 이를 수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취하는 태도이다. 주어진 '컨텍스트'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사람이 컨텍스트에서 규정된 의미를 무시하고 스스로 의미를 적용하거나 또다른 체계의 의미로 해독하는 방법이다. 이때 일어나는 의미의 충돌과 공식화를 '헤게모니 획득과정'(R.Johnson)이나 '지배'(S.Hall)로 보기도 한다.

17) 유사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김정희가 처한 상황이 그림에 '반영(또는 투사/projection)'되어 그림의 공간구조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하면 다음의 표2 와 같다.

표 2 현실공간과 세한도의 공간 요소의 비교

현실공간		대치	세한도의 공간		건축적 어휘
요소	의미/상징		요소	의미/상징	
집	물리적(생활)공간		집	자신의 몸(존재)	벽
가시울타리	가둠, 제한, 물리적 격리/		소나무들	보호, 의지, 정신적 지주/	기둥
	중심으로부터의 탈락			기존 지배이념구조	
-			월창	희망/자기규정	창
유배지	변방/평민의 삶		여백(歲寒)	유배지의 현실무시	비움(void)

3-2 소결 ; 김정희의 현실대응과 투영방법

이상의 비교에서 김정희가 유배지의 현실을 세한도에서는 '실재'를 왜곡하고 존재의 참된 물질적 조건을 가리는 방법(허위의식)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18] 그가 취했던 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주변 유배지의 현실적 구조 또는 무시:

② 현실적 구조를 유교적 가치(지배이데올로기)를 투영한 공간의 구조로 치환(허위의식), 자기 방어적 역할

③4개의 나무로 둘러친 공간: 자신을 둘러싼 공간요소화: 공간을 한정하는 기둥(소나무) 으로 현실의 어려움(추움)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으로 치환 :

④중심(한양,중국)에 대한 동경 : 둥근 월창(중국적 요소)의 개구부를 통한 , 현재의 상황을 무시한 중앙 지향성

4. 결 론 :문화연구 방법의 시도

본 연구는 건축이 "문화연구"적 틀로서 읽혀지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림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문인화"의 대표작인 "세한도(歲寒圖 , 金正喜,1844년작)"를 대상으로 사회 문화적 가치가 건축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화연구적)틀을 발견하고자 진행되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건축이 가지고 있는 1차적 기능 이외에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의미전달의 효과에 주목 할때 '문화연구"의 태도와 방법이 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건축의 특성상 이러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본 영구에서는 ○일종의 사진연구로서 건축적 내용을 지니고 있는 "세한도"를 분석허여 이르르 바탕으로 건축적 분석 방법의 틀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적용한 '세한도'에서 건축적 구성요소인 '벽','기둥', '창' 등의 요소가 건축의 공간을 구성하는 1차적 기능이외에 김정희의 현실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의미를 투영하는 매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허위의식적 적용) 동시에 이를 통해 건축적 요소들이 '문화 연구'의 틀 속에서도 분석할 대상이 됨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건축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간(메타)단계로 그림을 이용하였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문화연구'의 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각 어휘들이나 요소들 그리고 구성방법등에 적용된 의도를 보다 주의깊게 정의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들의 수용적 태도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과 사례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8) 이러한 태도는 동시대인이며 앞선 시기에 유배를 간 '다산 정약용(1762-1836)'의 태도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은 유배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이상적 공간으로 만들어낸다.

참고문헌

1. 정재철 편저, 문화연구이론, 한나래, 1998
2. 존스토리 저,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현실문화연구. 1998
3. 유홍준, 완당평전1,2,3, 학고재, 2002
4. 오주석,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1, 솔, 1999
5. 박석무,다산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한길사.2003
6. 유루겐 요디케 저, 윤재희 외 역, 건축 공간과 형태 , 세진사,1995
7. 호사카 요오이치로 저, 이진민 역 , 경계의 형태 그 건축적 구조 , 한국산업훈련연구소,1999
8. 더글라스 쿠퍼 저, 최길렬 역, "드로잉과시지각",국제,1999
9. 엘리안 스트로스베르 저, 김승윤 역 , 예술과 과학, 을유문화사, 2002
10. 최윤경 ,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 시공사, 2003
11. 아게마츠 유우지 저, 이두열 역, 건축 공간의 미학, 현대건축사,2000.